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카타르

State of Qatar

2022년 5월 2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2천 km ² 	인구 2.6백만 명 (2021°)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GDP 1,796억 달러 (2021°) 	1인당GDP 68,581달러 (2021°) 	통화단위 Qatari Rial(QR) 	환율(U\$기준) 3.64 (고정환율제) 

- 카타르는 걸프만 서안에 돌출한 반도 국가로서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북서쪽으로 바레인에 인접한 인구 2.6백만 명, 국토 면적 12천 km²(한반도의 5%)에 불과한 소국이나,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며 2021년 1인당 GDP가 68,581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임.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이하 아랍 4개국)의 주도 하에 일부 이슬람권 국가들이 카타르의 친(親)이란 정책과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지원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한 바 있으나, 2021년 1월 제41회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아랍 4개국과 카타르는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하였음.
- 카타르는 세습군주제로 2013년 6월 즉위한 타미م 국왕의 통치 하에 풍부한 사회복지 혜택 등을 제공 하여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4. 18 수교 (북한과는 1993. 1. 11 수교)

주요협정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84), 문화협력협정('88), 투자증진·보호협정('99), 항공협정('09), 이중과세방지협정('09), 군사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357,290	339,097	420,152	자동차, 전력용기기, 기타정밀화학제품
수입	13,036,553	7,562,141	11,611,066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신규 법인 수 기준) 92건, 75,85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1.5	1.2	0.7	-3.6	1.5
소비자물가상승률	0.4	0.3	-0.7	-2.7	2.3
재정수지/GDP	-2.9	5.6	4.6	1.0	4.1

자료: IMF, EIU

2021년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1.5%의 플러스 경제성장 추정, 2022년에도 회복세 지속 전망

- 카타르는 2020년 확인매장량 기준* 천연가스 세계 3위, 원유 세계 13위의 에너지 자원 부국이자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전 세계 수출물량의 21.7%)으로 에너지 산업 부문이 2020년 GDP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기준

- (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원자재 수요 감소 및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3.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세계 실물경기 회복과 그로 인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1.5%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천연가스 가격 추이(U\$/MMBtu*)



[그림 2] 브렌트유 가격 추이(U\$/배럴)



* 1MMBtu는 100만 BTU를 의미하며, 1BTU는 252cal를 의미하는 영국 열량 단위임. 자료: Naver (원출처: NYMEX)

자료: Naver (원출처: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 (2022년) 2022년 4월 22일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6.96달러(NYMEX 기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8.33달러(Intercontinental Exchange 기준)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 최초의 대형 스포츠 행사인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개최(11~12월)가 예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 관광업 성장 등에 힘입어 2022년 카타르 경제는 3% 내외의 성장이 전망됨.

※ 주요 기관별 카타르 2022년 경제성장 전망치: ('22.4월)IMF 3.4%, ('22.4월)Fitch 3.2%, ('22.3월)Moody's 2.7%, ('22.4월)EIU 5.5%

- 2017년 아랍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과의 단교 이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의 관광객은 카타르 전체 관광객의 40%를 차지하였음. 카타르가 2021년 1월 아랍 4개국과의 단교를 해소하고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카타르 FIFA 월드컵 관련 인근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업 회복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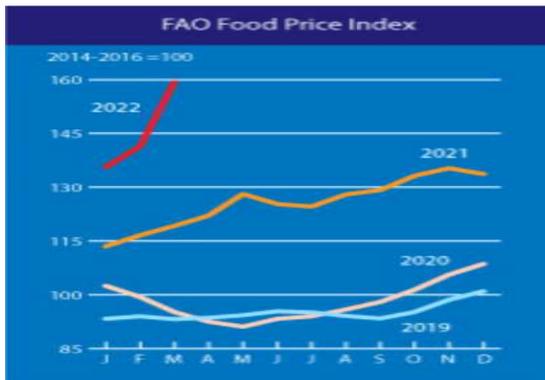
※ 특히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본선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수의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 유입 전망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및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2021년 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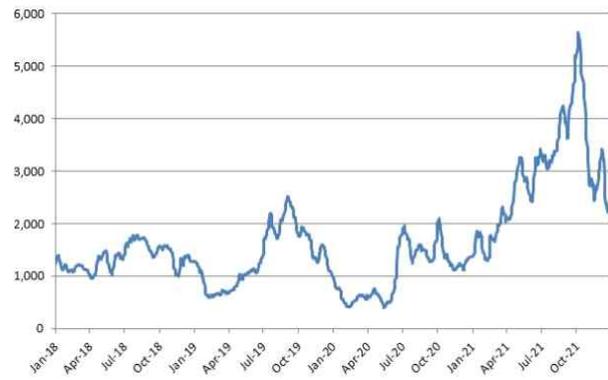
- **(2021년)** 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 글로벌 유통망 장애에 따른 수송 비용 상승, 중동 및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험 증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카타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2020년 5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0년 평균 98.1을 기록한 이후 2021년 평균 125.7을 기록하였음.
- 2021년 평균 해상운임지수(2,943) 역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었음.
- **(2022년)**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여 에너지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2022년 3월 FFPI가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159.3을 기록하는 등 FFPI의 주요 구성항목인 곡물 국제가격이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여 카타르가 2022년 3.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3] 세계식량가격지수(FFPI) 추이



자료: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그림 4] 해상운임지수 추이(BDI 기준)



자료: Baltic Exchange, Clarkson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부문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재정수지 흑자 추정

- 에너지 부문은 2020년 카타르 재정수입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부문에의 재정의존도가 큼.
- **(2020년)** 공무원 임금 지출 및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축소 등 재정지출 감축(전년 대비 12.5%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재정수입이 감소(전년 대비 21% 감소)함에 따라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3.6%p 감소한 1.0%를 기록함(IMF).
- **(2021년)** 카타르는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관련 인프라 투자 등으로 2021년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1,920억 카타르 리얌(QR)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과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 수입(收入) 역시 증가하여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한 2,190억 QR을 기록함에 따라 2021년 GDP 대비 4.1%의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IMF).

국내경제

[표 1] 2017~2021.3Q 카타르 재정 현황

단위 : 십억 QR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1Q	2021.2Q	2021.3Q
재정수입	163	208	215	171	45	50	47
석유 및 가스 등	133	173	170	133	N.A		
기타	30	35	45	38			
재정지출	203	193	208	182	45	46	46
공무원 임금	53	56	61	58	N.A		
경상지출	60	55	63	58			
주요 프로젝트	86	78	80	63			
기타	4	4	4	4			
재정수지	-40	15	6	-11	0.2	3.8	0.9

자료: 카타르 중앙은행(2022.1월 발표자료) 자료이며 IMF 발표치와 차이가 존재함. IMF 발표치에 따른 연도별 재정수입 규모는 2017년 1,860억 QR, 2018년 2,300억 QR, 2019년 2,380억 QR, 2020년 1,880억 QR, 2021년 2,190억 QR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6,426	16,652	4,260	-3,617	26,288
경상수지/GDP	4.0	9.1	2.4	-2.5	14.6
상 품 수 지	36,733	50,981	41,581	27,137	60,339
상 품 수 출	67,498	84,288	72,935	51,504	87,203
상 품 수 입	30,766	33,307	31,354	24,367	26,864
외 환 보 유 액	13,176	28,538	37,066	36,836	37,235
총 외 채	166,258	198,214	242,612	270,116	269,405
총외채잔액/GDP	103.2	108.1	137.6	187.1	150.0
D.S.R.	10.0	6.9	7.5	9.4	6.6

자료: IMF, EIU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으로 상품수지가 개선되어 2021년 경상수지 흑자 회복이 추정되며, 높은 에너지 국제가격이 지속되어 2022년 경상수지 흑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카타르 중앙은행(QCB)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카타르는 천연가스 및 원유 부문이 총수출의 82%(천연가스 61%, 원유 21%)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여파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29% 감소한 515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 대비 -2.5%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21년)** 글로벌 실물경기가 회복되면서 천연가스 및 원유의 국제수요가 증가하였고, 아울러 에너지 국제가격도 상승하여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872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 대비 14.6%의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입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6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의 영향으로 2022년 4월 22일 기준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6.96달러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8.33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고 있어 2022년 상품수출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21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더욱 개선된 GDP 대비 2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기관별 카타르 2022년 경상수지 전망치(GDP 대비): ('22.4월)IMF 19.9%, ('22.3월)Moody's 25.1%, ('22.3월)EIU 25.1%

외채상환능력

카타르의 막대한 국부펀드(QIA) 및 국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용이성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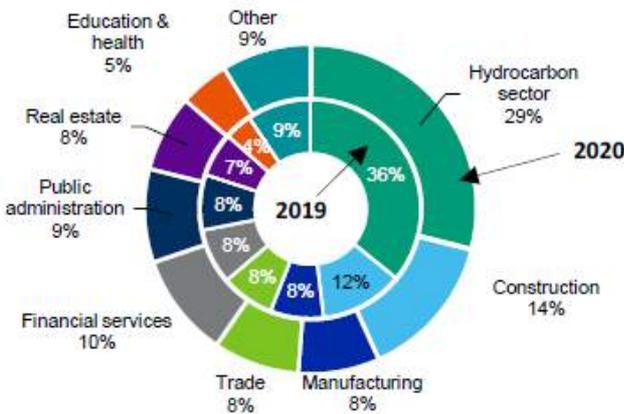
- 카타르는 2021년 총외채잔액/총수출 비율(232.4%), 총외채잔액/GDP 비율(150.0%),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160.2%) 등 전반적인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열위하나, 실질 상환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D.S.R.(총수출액 대비 외채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6.6%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아울러 2021년 GDP 대비 1.4배 및 총외채잔액의 0.9배에 달하는 2,393억 달러의 국부펀드(Qatar Investment Authority, QIA)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가 카타르 앞 부여한 신용등급(Moody's Aa3, Fitch AA-) 등을 고려 시 국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됨.
- 2021년 6월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인 Qatar Energy(舊 Qatar Petroleum, QP)는 역대 신형시장 최대 규모인 125억 달러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음(총 400억 달러의 매수 주문이 몰림).

구조적취약성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 등 대외변수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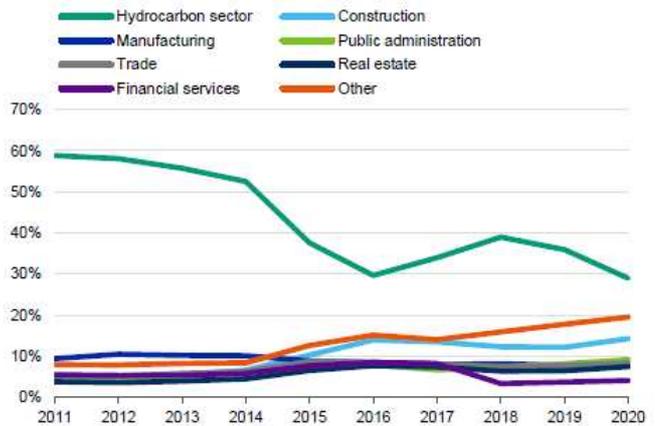
- 카타르는 2020년 기준 에너지 부문이 GDP의 29%, 재정수입의 78%, 총수출의 82%를 차지하여, 에너지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2000~15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천연가스 가격(일본 LNG 수입가격 기준 MMBtu당 2014년 15.8달러 → 2016년 7.37달러) 및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2014년 98.9달러 → 2016년 44.0달러)가 크게 하락한 2016년에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바 있음.
- 이후 2017년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회복했고, 2018년에도 에너지 국제가격의 추가 상승에 힘입어 GDP 대비 9.1%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카타르는 에너지 국제가격 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그림 5] 카타르의 산업별 GDP 기여도(2019~2020년)



자료: Moody's (원출처: Haver Analytics and Moody's Investors Service)

[그림 6] 카타르의 산업별 GDP 기여도(2011~2020년)



자료: Moody's (원출처: Haver Analytics and Moody's Investors Service)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만성적인 이전수지 적자 발생

- 카타르 경제활동 인구의 약 95%가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의 본국 앞 해외 송금 등에 따라 2018~2020년 동안 평균적으로 GDP의 9% 수준의 이전소득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2021년에도 지속되었음.

단위: 백만 카타르 리얄(QR)

구분	2018	2019	2020	2021.1~3Q
경상수지	60,614	15,394	-13,167	56,195
이전소득수지	-59,523	-60,449	-45,258	-41,264
이전소득 수입	3,407	4,911	5,485	4,440
이전소득 지출	-62,930	-65,360	-50,743	-45,704

자료: 카타르 중앙은행

성장잠재력

세계 2위 LNG 수출국이자 GCC 국가 중 재정균형 유가가 가장 낮은 자원 부국

- 카타르는 2020년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의 21.7%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임. 2020년 말 기준 카타르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3.1%인 24.7조 m³로 세계 3위 규모이며, 이는 2020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44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기준이며, 세계 1위는 글로벌 천연가스 수출 물량의 21.8%를 차지한 호주임.
- 원유 역시 풍부하여 세계 13위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이며, GCC(걸프협력위원회) 국가 중 가장 낮은 재정균형 유가*를 기록하고 있음.
*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 수준
- 2022년 4월 IMF가 발표한 Regional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1년 카타르의 재정균형 유가는 배럴당 55.1달러로, GCC 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85.1달러), 쿠웨이트(68.6달러), 아랍에미리트(69.2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9년 카타르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한 29위(총 141개국 대상)로, 이는 중동·북아프리카(MENA) 국가들 중 이스라엘(20위), 아랍에미리트(25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GCC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등락폭) : 아랍에미리트(25위, ↑2), 사우디아라비아(36위, ↑3), 바레인(45위, ↑5), 쿠웨이트(46위, ↑8), 오만(53위, ↓6)
- 세부적으로는 ICT 기술 채택(8위)과 상품 시장의 효율성(13위), 재정 시스템(22위) 분야 등에서 강점을 나타냈고, 거시경제 안정성(40위), 인적 자원의 기술 수준(40위) 등에 대한 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로 남아 있음.
- 카타르는 2018년 5G 상용망 구축을 발표한 중동 지역 최초의 5G 도입국으로 성인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99.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휴대전화 보급률 142% 등 ICT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음.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인 북부 가스전 증산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에너지 선도국으로의 도약 기대

- 카타르 정부는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인 북부 가스전(North Field) 액화천연가스(LNG) 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2027년 프로젝트 완료 시 2019년 대비 약 58% 증산된 연간 1,260만 톤의 LNG가 생산될 예정으로, 동 프로젝트를 통해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전망됨.
- 동 프로젝트 규모는 최대 400억 달러로 총 2단계로 구성됨. 1단계(North Field East)는 2025년까지 LNG 트레인 4개를 증설하여 연간 생산량 1,100만 톤을 달성하는 것이고, 2단계(North Field South)는 2027년까지 LNG 트레인 2개를 추가 증설하여 연간 생산량 1,260만 톤을 달성하는 것임.

성장잠재력

- 카타르는 2011년 주요 LNG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에너지 부문의 생산량이 2013년 최고치인 하루 500만 BOE*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0년까지 증산을 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 에너지 산업 부문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 석유환산배럴(Barrel of oil equivalent)의 약자로, 에너지 자원의 단위로서 1배럴의 원유가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추정치임. 이 단위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을 하나의 단위로 합칠 때 사용됨.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카타르가 부분적으로 LNG 증산을 시작하는 2025년 4분기부터 에너지 산업 부문이 카타르의 중장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건설 부문 및 관련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로 비에너지 산업 부문의 성장도 전망하였음.
- 한편,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카타르는 유럽연합(EU)의 주요 LNG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타르와 장기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였음.
 - * 현재 EU는 가스 수요의 약 40%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가스 수요의 5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그림 7]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생산량 추이



자료: Moody's (원출처: National Authorities and Moody's Investors Service)

[그림 8] 카타르의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Moody's (원출처: Haver Analytics and Moody's Investors Service)

정책성과

외국인투자법(FDI Law) 개정 및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 정상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전망

- 카타르 정부는 2019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전 산업 분야에 최대 100%의 외국인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2020년 10월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자에게 거주 허가 및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발표함.
-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카타르경제자유구역(QFZA),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등을 운영 중으로 제조업, 석유화학, 첨단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며 산업다각화를 꾀하고 있음. 아울러 73만 리얄(2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투자자와 가족에 대해 거주 허가를 부여하고, 365만 리얄(100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아울러, 2021년 1월 카타르와 인근 국가들 간의 외교 정상화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는 카타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향상시켰음.
- 카타르는 2017년 단교 사태 여파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여 GCC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2018~20년의 3년 연속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표 2] GCC 회원국들의 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카타르	774	986	-2,186	-2,813	-2,434
사우디아라비아	7,453	1,419	4,247	4,563	5,486
아랍에미리트	9,605	10,354	10,385	17,875	19,884
쿠웨이트	419	348	204	104	-319
오만	2,265	2,918	5,940	3,420	4,093
바레인	243	1,426	1,654	1,501	1,007

자료: UNCTAD (※ 유입액 마이너스는 투자액보다 투자회수액이 큰 경우를 의미)

현지화(Localization)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밸류체인 육성

- 카타르 정부의 대표적인 현지화 정책은 '타우틴(TAWTEEN)'이라는 에너지 분야 공급망 프로그램으로, ①현지 재화 및 서비스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ICV(In-Country Value) 점수제도, ②현지화가 유망한 6개 분야* 100대 투자기회 제공, ③에너지 분야 공급자 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¹⁾.
 - * 화학 및 금속, 엔지니어링 서비스, MRO(소모성 자재 및 유지보수), 디지털 기술, 산업 기자재, 해양 플랜트 기자재 및 서비스
- 2020년 7월부터 Qatar Energy를 포함한 15개 에너지 분야 기업에서 발주하는 모든 조달 입찰에 ICV 제출 요건을 적용하여 입찰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타우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와 현지 구매 비율 확대(2019년 15% → 2023년 40%),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전망됨.

1) 2022 카타르 진출전략(KOTRA)

정책성과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에 기반한 중장기 국가 발전 추진

- 카타르는 2008년 중장기 국가 발전계획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 QNV)'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표하였음.
- 'QNV 2030'은 4개의 발전 중점 추진 분야(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경)와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발전 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5년마다 수립해 'QNV 2030'의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2차 국가발전전략 2018-2022(2nd NDS, NDS 2018-2022)가 진행 중이며, NDS에 따라 주요 분야별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하위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그림 9]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운영 구조



자료: KOTRA (원출처: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PSA)²⁾

중동 최초의 대형 스포츠 행사인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개최

- 카타르는 중동 최초로 대형 스포츠 행사인 FIFA 월드컵을 유치하여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을 오는 11~12월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메트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약 15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이 전망됨에 따라 카타르 관광청은 국영 항공사(Qatar Airways) 등 관광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호텔·리조트,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관광 및 생활 인프라를 집중 조성 중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 산업 부문이 한 단계 진일보할 것으로 전망됨.

2) 2022 카타르 진출전략(KOTRA)

정치안정

타미(Tamim) 국왕의 통치 하에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전망

- 카타르는 세습군주제 국가로, 2013년 6월 즉위한 타미 국왕(1980년생)이 통치하고 있음.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를 관할하고, 모든 법령의 비준 및 공포권을 갖고 있으며,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료 및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IHS Markit은 국왕이 아랍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과의 단교 사태(2017.6월 ~2021.1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2021년 1월 아랍 4개국과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한 점, 조직화된 야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여 2022년 4월 현재 카타르의 체제안정성 지수*를 1.10점으로 부여하고 있음.

* 0점(Low Risk) ~ 10점(Extreme Risk)를 의미

사회안정

풍부한 지하자원을 통해 쌓은 부(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안정 유지

- IMF의 2022년 4월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카타르의 2021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104,668달러로, 이는 역내 1위 및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또한, 카타르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통해 쌓은 부(富)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면세, 무상교육 및 무상주택 제공 등 풍부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PPP 기준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세계 1위는 룩셈부르크(131,875달러), 2위는 싱가포르(116,487달러)이며 한국은 30위(48,578달러)임.

- 영국 엑시터 대학(University of Exeter)의 걸프 연구 센터에서 발표한 아랍 지역 국가별 삶의 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카타르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아랍 지역 20개국 중 1위를 차지함.
- 아랍에미리트가 2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쿠웨이트(3위), 바레인(5위), 사우디아라비아(6위) 등 GCC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상위에 랭크함.
- 또한,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1년 세계평화지수에서 카타르는 MENA 지역 최상위권(1위) 수준의 평화지수를 기록하였음(163개국 중 29위).

[그림 10] 2021년 MENA 세계평화지수

Middle East & North Africa

Regional Rank	Country	Overall Score	Score Change	Overall Rank
1	Qatar	1.605	0.015	29
2	Kuwait	1.688	-0.007	36
3	United Arab Emirates	1.848	-0.053	52
4	Jordan	1.916	-0.007	63
5	Oman	1.982	-0.004	73
6	Morocco	2.015	-0.038	79
7	Tunisia	2.108	0.024	98
8	Bahrain	2.121	-0.03	102
9	Algeria	2.31	0.02	120
10	Saudi Arabia	2.376	-0.014	125
11	Egypt	2.397	-0.013	126
12	Palestine	2.61	-0.074	138
13	Iran	2.637	-0.013	141
14	Israel	2.669	-0.074	143
15	Lebanon	2.797	0.037	147
16	Sudan	2.936	-0.028	153
17	Libya	3.166	-0.006	156
18	Iraq	3.257	-0.147	159
19	Syria	3.371	-0.033	161
20	Yemen	3.407	0.08	162
REGIONAL AVERAGE		2.459	-0.02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1: 가장 평화로움, 5: 가장 위태로움)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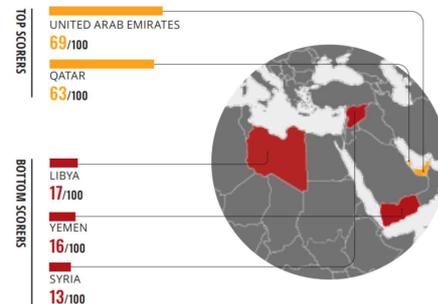
2021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계단 하락한 31위를 기록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카타르는 63점(100점 만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평가점수를 부여받았으나, 순위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계단 하락하였음. 이는 GCC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 GCC 국가 부패인식지수: 아랍에미리트(69점, 24위), 사우디아라비아(53점, 52위), 오만(52점, 56위), 쿠웨이트(43점, 73위), 바레인(42점, 78위)

-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카타르가 속한 MENA 지역의 평균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4년 연속 39점을 기록 중으로, MENA 지역 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69점, 24위)가 최고점을, 시리아(13점, 178위)가 최저점을 부여받았음.

[그림 11] 2021년 MENA 지역 CPI 상·하위 국가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ody's는 카타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카타르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경제·재정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정책과 관련한 환경 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다만, 낮은 수준의 에너지 자원 생산 비용과 상대적으로 클린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음. 아울러 카타르가 극심한 물 부족 국가로 경제성장,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부담요인으로 지적되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사회)** 최근의 높은 인구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의 자국민 비중(약 10% 수준)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을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효과와 강력한 부패 통제, 법치에 의해 뒷받침되는 입법 및 집행 기구의 질적 개선을 반영하여 카타르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1등급(Positive)으로 평가함.

국제관계

중립외교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시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교류 강화

- **(미국)** 미국은 2020년 카타르의 1위 수입상대국(41억 달러, 비중 15%)으로, 무역 외에 투자·항공·군사·교육 분야에서 카타르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2003년 중동 최대의 미 중부사령부 기지를 유지한 이후 미군 1만 명 및 국제연합군이 카타르에 주둔 중이며, 2020년 제3회 전략대화(3rd US-Qatar Strategic Dialogue)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음.
 - 2020년 말 미국 화이자(Pfizer) 및 모더나(Moderna)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 중이며, 2021년을 카타르-미국 문화 교류의 해로 선정하는 등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은 유럽에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처가 될 수 있는 카타르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2022년 3월 카타르를 공식적으로 **非나토(non-NATO)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非나토 동맹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동맹국을 가리키며, 이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걸프 지역에서는 카타르 외에 쿠웨이트(2004년)와 바레인(2004년)이 非나토 동맹국의 지위를 부여받았음.

- **(중국)** 중국은 2020년 기준 카타르의 2위 수출상대국(78억 달러, 비중 15%)이자 수입상대국(39억 달러, 14%)으로 무역 외에 투자·건설·IT(5G)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 부문에서도 카타르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카타르의 2위 통신사 보다폰(Vodafone Qatar)은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 화웨이와 협력하고 있으며, 카타르 내 메트로 건설 프로젝트,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경기장 건설 프로젝트, 태양광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등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2021년 3월 중국 최대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SINOPEC)이 Qatar Energy와 2022년부터 10년 간 매년 200만 톤의 LNG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Qatar Energy와 2022년부터 15년 간 매년 350만 톤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은 에너지 자원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표 3] 카타르의 주요 교역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9년				2020년			
	수출국	금액(비중)	수입국	금액(비중)	수출국	금액(비중)	수입국	금액(비중)
1	일본	13,592 (19%)	미국	5,495 (19%)	일본	7,996 (16%)	미국	4,052 (15%)
2	한국	11,370 (16%)	중국	3,551 (12%)	중국	7,816 (15%)	중국	3,850 (14%)
3	중국	9,020 (12%)	독일	2,125 (7%)	인도	7,353 (14%)	영국	1,810 (7%)
4	인도	8,873 (12%)	영국	1,985 (7%)	한국	6,626 (13%)	독일	1,582 (6%)
5	싱가폴	5,522 (8%)	인도	1,560 (5%)	싱가폴	3,443 (7%)	인도	1,342 (5%)
6	태국	2,839 (4%)	(15위)한국	357 (1%)	대만	1,779 (3%)	(17위)한국	299 (1%)

주: 수출국 통계는 FOB 기준, 수입국 통계는 CIF 기준
자료: KOTRA (원출처: Planning & Statistics Authority)

국제관계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 수행

- 카타르는 국가의 실리를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으로 이란, 무슬림형제단 등 역내 반미 진영 국가/세력과도 적절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 등 시아파 이슬람 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중동에서 중립 외교를 추구하고 있음³⁾.
- 카타르는 2020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도하 협정)을 중재한 바 있으며, 2021년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는 탈레반 지도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핵심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음. 아울러 Financial Times는 2022년 3월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의 요청에 따라 2015년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복원을 위한 중재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함.

3) 2022 카타르 진출전략(KOTRA)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2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지원잔액 20,878백만 달러(단기 451백만 달러, 중장기 20,427백만 달러) 중 연체금액은 22백만 달러 수준이며, 이는 전체 지원잔액의 0.1% 수준임. 또한,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2.01)	3등급(2021.01)
Moody's	Aa3 (2020.09)	Aa3 (2018.07)
Fitch	AA- (2022.04)	AA- (2021.06)

OECD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카타르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중

- OECD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카타르가 2021년 GDP 대비 1.4배 및 총외채잔액의 0.9배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펀드(QIA)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여타 산유국 대비 낮은 재정균형 유가를 기록하고 있고, 2021년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어 재정여력이 확충된 점, 2021년 1월 아랍 4개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점 등을 반영하여 카타르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OECD는 2013.1월 3등급, Moody's는 2017.5월 Aa3, Fitch는 2017.8월 AA-를 각각 부여 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 에너지 부국인 카타르는 세계 실물경기 회복과 그로 인한 주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5%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22년에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 국제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개최(11~12월)도 예정되어 3% 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입의 78% 및 총수출의 82%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회복으로 2021년 GDP 대비 4.1%의 재정수지 흑자 및 14.6%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총외채잔액/총수출(232.4%), 총외채잔액/GDP(150.0%) 등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열위하나, 실질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D.S.R.(6.6%)은 양호한 수준임. 아울러 2021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의 0.9배에 달하는 국부펀드(QIA)를 보유하고 있는 점, 에너지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확충된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제신용평가사는 카타르 앞 비교적 양호한 신용등급을 부여(Moody's Aa3, Fitch AA-)하고 있음.
- 카타르는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인 북부 가스전 증산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및 에너지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의 주요 LNG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음.